

학력·AI·돌봄까지... 부산시교육청, 교육격차 해소 총력

‘교육격차해소 종합계획’ 시행
디지털·과학 등에 5239억 투입
유연한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 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부산 모든 학생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원도심 및 작은학교 등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346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전년 대비 49개 사업과 724억원이 확대된 총 5239억원 규모로 12개 영역 137개 세부 사업을 담았다.

12개 영역은 ▲학력신장 ▲과학·융합 ▲디지털·AI ▲인성 ▲문화·예술 ▲진로·진학 ▲방과후·돌봄 ▲교육복지 ▲교원인사 ▲인력지원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 교육 등이다.

특히 학력신장 분야에서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BE-Talk', 중·고교 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 학교급 전환 기인 초·중·고 대상 '점프업 윈터스쿨' 등 학생 맞춤형 사업을 운영해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AI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현장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학생들의 인공지능(AI) 기기 활용 능력을 밀착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적응을 돕는다.

또 학교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미래형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등 10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집중 관리 대상 학교에 대한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최근 3년간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대한 분석과 누적 관리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보성군

‘보성다향대축제’ 내달 1일 개최

보성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대한민국 대표 차(茶) 문화관광축제인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보성말차! 젊음을 담다! 세계를 담다!'를 주제로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서상균)가 주관하며, 전통 차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 체험형·참여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말차'를 핵심 키워드로 전면에 내세워 젊은 세대와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구미시

관광지 인증 스탬프 투어 운영

구미시가 관광지 방문 인증을 통해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단순 방문을 넘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은 '2026년 구미 모바일 스탬프 투어'로, 4월부터 11월까지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는 4월 15일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용자는 'K-스탬프투어' 앱을 활용해 관광지를 방문하면 GPS 기반으로 자동 인증을 받고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울산시, 고유가 위기 극복에 284억 투입

정부 지원 사각지대, 시비로 부담
소상공인·중기 등 자체 지원 강화

울산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국회에서의 결된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해,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울산시 자체 재원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울산시는 지방비 부담분 284억원을 100% 시비로 부담하고, 고유가 대응 자체 특화 사업 442억원을 추경에 별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취약계층 최대 60만원까지 울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421억원이며 울산시가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시비로 편성함에 따라 구군의 별도 재정 부담은 없게 된다.

정부 추경이 소득 하위 70% 지원에

집중되는 만큼, 울산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농어업인 등을 위한 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1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하고, 대출 이자 일부(1.2~2.5%)를 지원하는 이자 보전 사업에 62억원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40억원을 추가 적립해 총 8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울산페이 발행 지원에 114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캐시백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꾀한다.

화물업계와 시내버스에는 유가 보조 및 재정지원으로 각각 100억원씩 추가 편성하고, 농어업인에게는 면세 유 인상분의 30%를 한시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냉난방기 교체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유튜브 한시 지원,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지원 등 생활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담겼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모습.

/전남도

전남, 여수서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연다

20~22일 탄소중립 흐름 공유

전남도는 기후환경·에너지산업의 미래와 탄소중립 전환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2026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KEET)'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GX Week)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을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비즈니스

스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을 앞둔 시점에 열려 기후환경·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전남광주특별시의 산업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환경신기술 ▲자원순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에너지 ▲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우수 제품을 선보인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창원시, 전기연구원과 캠퍼스 조성 협약

산·학·연·관 연계 개방형 캠퍼스

창원시와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13일 창원시청에서 'KERI 개방형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KERI는 미래 성장 전략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개방형 제2캠퍼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제2캠퍼스는 AI와 전력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의 연구 협업부터 실증·인증, 인재 양성까지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창원시 관내 제2캠퍼스 부지 선정을 추진하



창원시와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13일 창원시청에서 'KERI 개방형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

고, ▲정부 지원 사업 유치 및 정책 과제 대응 ▲기업 지원 및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캠퍼스는 부지 선정 이후 단기·중기·장기 단계로 순차 추진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남, '岫 이스포츠 대회' 사전 행사 돌입

개막전·부트캠프 등 열려

오는 24일 개막하는 '2026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경상남도과 경남문화예술포럼이 18일부터 다양한 사전 행사를 잇달아 펼친다.

행사는 18일부터 26일까지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과 진주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대회 개막 전후로 프로그램을 촘촘히 배치해 관광객 유입과 현장 열기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첫 일정은 18~19일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개막전이다. 전국 지역 연고 팀 선수단 96명이 참가해 경쟁을 벌인다.

같은 기간인 18~22일에는 게임중독 사범블뉴런 주관의 '이터널 리턴 부트캠프'가 열린다. 중국·일본·베트남 등 4개국 선수단 30여명이 참가해 맞춤형 훈련과 합동 연습경기로 실전 감각을 점검하며 진주시문화체육프로그램에도 참여해 국가 간 교류를 다진다.

/경남=손병호 기자

하동군

알림톡으로 체납세 징수 해결

하동군이 카카오톡 알림톡 기반 체납세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징수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체납세 1566건, 총 1억 3800만원이 납부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납부 건수는 53.4%, 납부 금액은 66.3% 늘어난 수치다. 하동군은 모바일 기반 안내 방식 전환으로 체납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돼 자진 납부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